

‘기독언론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돕겠다

기독일보 제1대 이사장 오병익 목사 취임감사예배 드려

본지 제1대 이사장에 오병익 목사(남가주벤엘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지난 7월 31일 오후 3시 남가주벤엘교회에서 거행된 취임감사예배에서 오 목사는 “제1대 이사장으로 위촉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는 일에 제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흔쾌히 수

락하게 되었다”면서 “기독일보가 기독교 언론의 본질적 사명인 예수님을 믿는 교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일, 세상을 복음으로 책망하고 선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식순을 맡고 오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본지 편집고문인 정우성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남가주중

부교회협의회 회장인 전동은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인 강신권 목사가 “심지가 견고한 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인 엄규서 목사,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인 박용덕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 부회장인 이호우 목사가 각각 축사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인 정해진 목사는 축사를 했다.

강신권 목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자신과 동일시 하며 살림의 축복이 넘치는 기독일보와 이사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엄규서 목사는 “기독일보가 이사장 취임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더욱 귀히 쓰이길 바란다”고 축복했으며 박용덕 목사는 “평소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읽던 기독일보가 좋은 이사장을 모신 것은 큰 축복”이라면서 “오 목사는 지성

과 영성, 열정과 경험,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갖춘 분”이라고 했다. 이호우 목사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덕스럽게 용서하고 화해를 이끄는 기독언론이 되라”고 당부했다.

예배 중에는 남가주벤엘교회 웨키나성가대와 김현지 자매가 특송을 했고 서병길 목사(새하늘 선교교회 담임)가 봉헌기도, 김은정 목사가 광고했다. 오 목사가 총재를 맡고 있는 1천만 한국인 이민운동의 상임대표인 박상원 장로도 축사했다. 예배 후 남가주벤엘교회가 준비한 식사를 위해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인 강지원 목사가 기도했다.

한편 오 목사는 성결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아주사피서피대학교, 휴스턴신학대학원 등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처장을 역임했고 이민목회를 40년간 해 왔다.

김준형 기자



취임사를 전하고 있는 오병익 목사.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맨 앞줄 중앙)오병익 목사 사모.

“유럽·중동 ‘분쟁지역’, 성경 반포율 1년새 88% 증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2015년 현황 발표...전 세계적으로는 1.5% 증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에서 ‘2015년 성경 반포 보고(The 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15)’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는 전년보다 약 1.5% 증가한 3,439만 6,611부의 성경전서가 반포됐다. 신약·단편·전도지 등을 포함하면, 총 4억 1,870만여 부가 반포됐다.

특기할 만한 점은 ‘분쟁 지역’에서 성경 반포율이 높았다는 것. 전쟁과 폭력, 갈등이 극심한 시리아와 이라크, 레바논과 요르단, 최근 쿠데타가 발생한 터키 등이 속

한 유럽·중동의 성경 반포율은 1년 사이 88% 증가했다. 성경전서는 241만 3,375부, 전체는 1,001만 7,251부 반포됐다.

이에 대해 시리아성서공회 총무는 “지난 5년 동안 시리아의 성경 반포량은 최악이었기에, 기독교인들은 점점 성경을 갈급해하고 있다”며 “시리아의 각 가정 어려운 상황에 있고 희망을 잃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UBS 관계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

경 반포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만큼 성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종교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했다.

미주 지역에서는 성경전서 1,475만 4,056부와 전체 3억 3,035만 4,226부가 반포됐다.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약 1,450만 부의 성경전서를 반포했다. 특히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은 지난해 약 760만 부의 성경을 반포, 2010년부터 총 4,400만 부 이상을 보급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비신자 美청년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

취태대 2천명 대상 설문조사...신앙엔 관심, 내세엔 무관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에 관한 대화에는 마음이 열려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연구소(Lifeway Research)와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신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는 기존의 전도 전략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연구소는 최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교회 활동의 형태와, 이들이 얼마나 신앙에 관한 대화에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취태대학교 학생들 2,000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조사한 샘플은 2,000개, 표본 오차는 ± 2.7이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1)[13면 참조]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USA Tel: (949) 329-8222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Email: shelby.moon65@gmail.com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www.MyIvydream.com

HAPPY MINISTRY CONFERENCE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행복목회 컨퍼런스

백동조 목사 (목포사랑의 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힘든 이민교회 현장에서 행복목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줄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입니다.
 제자훈련, 성령운동, 셀을 통합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은 **행복목회**입니다.

대상 담임목사, 사모, 부교역자
 정원 200명(선착순 등록)
 등록비 1인 \$100 부부 \$150(교재 및 식사제공/숙박 개별)
 참가문의 714-446-1000, 1004
 은혜한인교회 사이트 http://www.gracemi.com
 150 S. Brookhurst Dr., Fullerton, CA 92833

일시 2016.8.15(월) 10AM ~ 8.16(화) 1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주관: 은혜한인교회 후원: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JAMA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제24회 밀알 사랑의 캠프가 7월 21일~23일까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애인”

제24회 밀알 사랑의 캠프...10개 지역에서 550여 명의 밀알 가족 참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제24회 사랑의 캠프가 지난 7월 21일~23일까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뉴저지 주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뉴저지, 시카고, 샬롯, 커네티컷, 캐나다 그리고 애

틀란타 등 총 10개 지역에서 550여 명의 밀알 가족이 함께했다. 성인캠프에서는 시카고한국교회 서창권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아동캠프는 김은예 전도사가 진행했다. 또 이재서 세계밀알 총재가 한국으로부터 방문해 특별세미나를 인

도하기도 했다. 애틀란타밀알선교단 하현지 간사는 “기도와 후원으로 Charter Bus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캠프를 다녀올 수 있었다. 캠프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밀알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수영 기자



연합예배에서 갈보리믿음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임마누엘장로교회·갈보리믿음교회 연합예배 드려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목사 Raafat Girgis)와 이 교회를 빌려 사용하는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가 지난 7월 31일(주일) 주일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두 교회는 매년 수 차례에 걸쳐 연합예배를 드리며, 다민족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나라 확장의 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예배는 영어권과 스페니시권 회중이 공존하는 임마누엘장로교회를 고려해 영어, 한국어, 스페니시 등 3개국어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서는 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목사인 라파트 기르기스가 설교했다. 기르기스 목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흠어짐과 모임”(창 11:1-9, 행 2:1-3) 주제 설교를 통해 “베벨탑을 쌓던 인간들을 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흠어지게 하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모이고 연합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강진웅 목사는 성찬식 집례

와 기도를 인도했다. 특히 기도 순서에서는 한국식 통성기도 형태로 인도했다. 전쟁과 테러 때문에 분열과 흠어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평화가 임하길 기도했다. 또 아직도 비어있는 많은 교회가 다시 부흥하여 복음전파에 앞장설 것을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길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다. 한편 LA한인타운 한복판인 월서길에 위치한 이 교회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차없는 도로 ‘시클라비아’(CicLAvia)행사에서 지나는 행인들에게 물병을 나눠주며 전도에 나선다. 이 행사는 8월 14일(주일) 오전 9시~ 오후 4시까지 LA다운타운 피게로아부터 LA한인타운 웨스턴까지 월서 불바다 3.5마일 구간에서 진행된다. *주소: 3300 Wilshire Blvd. #303 LA, CA 90010 *문의: 213-365-8880 이영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서류미비자·저소득층 위한 무료 상담 올해도 계속”



한인가정상담소가 올해도 한 독지가로부터 5만 달러를 기부 받아 심리상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을 섬길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익명의 한인이 5

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된 ROCK(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 프로그램은 한인 중에도 서류미비자, 가정폭력 및 범죄 피해자, 저소득층, 무보험자 등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섬겨왔다. 이 기금이 조성되기 전인 2014년에 한인가정상담소는 전체 피상담자의 8%에 해당하는 18명에게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 기금이 마련된 2015년에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77명이 무료 상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기금 5만 달러가 무사히 확보되면서 한인가정상담소는 무

료 상담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카니 정 조 소장은 “ROCK 상담 기금 덕분에 우울증, 불안증, 각종 트라우마를 겪던 한인들이 자신의 삶이 행복해졌다고 말한다”면서 “건강한 한인 가정을 만들라고 큰 기금을 마련해 준 후원자에게 감사드리며, 한인가정상담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으로 힘들어 하는 한인과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213-389-6755 카카오톡 아이디 KFAMLA *주소: 3727 W. 6th St. #320 LA, CA 90020 김준형 기자



신태훈 선교사가 군사사랑선교회 월례모임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

LA군사랑선교회 7월정기 모임 개최

군목 출신 신태훈 선교사 요르단 선교보고

한국 해군 군목 출신으로 요르단에서 선교 중인 신태훈 선교사가 LA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회창 목사) 7월 정기 모임에서 선교보고를 했다. 지난 7월 30일 워싱턴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이 모임에서 신 선교사는 10년째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며 겪은 여러가지 일들을 간증했다. 군사사랑선교회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월례 모임을 열고 있다. *문의: 213-268-9367

캘리포니아 어린이 합창단 창단 위한 오디션

8월 13일(토) 오후 1시 개최
킨더부터 12학년 대상

국제음악선교회(IMM, International Music Mission)가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을 창단한다. 김삼도 목사가 25년 전 세운 이 선교회는 교회 음악 세미나, 찬양 보급, 연주회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어린이 합창단(California Children's Choral)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 합창단 창단을 주도하고 있는 임보희 사모는 “연주회는 물론 찬양 CD도 제작해 특별히 감옥과 선교지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보희 사모를 비롯한 합창단 리더십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세대들이 이 합창단에 함께 하



김원재 지휘자(좌)와 임보희 반주자(우). 길 40일간 기도하는 중이다. 이 합창단에 참여하고 싶은 킨더부터 12학년 학생을 위한 오디션은 8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국제음악선교회 스튜디오(2341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에서 열린다. 찬송가나 CCM 1곡을 한국어 혹은 영어로 부르면 된다. 악보는 각자 지참해야 한다. 문의는 임보희 사모에게 하면 된다. *전화: 562-926-1023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미성대학교 2016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김광렬 박사

(모집마감: 8월 24일/개강: 8월 29일)



모집과정

본교는 CA 주정부교육국과 연방정부교육부인준 ABHE에서 정식인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함

신학부: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선교학석사(MAICS), 목회학박사(D.Min.)
경영학부:경영학과(B.A.), 경영학석사(MBA)
상담학부:상담학석사(M.A.C.), 상담학박사(D.C.)

입학지원

- 1. 입학서류: 본교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aeu.edu)
- 2. 전형방법: 1)서류심사 2)면접(장학생선발)
- 3. 신청마감: 2016년 8월 24일(수)

입학관련문의

Tel: (323)643-0301 / E-Mail: admission@aeu.edu(담당: Jin Lee)

미성대학교의특징

- ABHE 정회원/서울신학대학교 MOU 체결(교수, 학생, 학점 등 전과정 협약)
- 전 과목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강의
- 한국과 미국 또는 전 세계에서 수강가능(온라인강의)
-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특전

- 모든 과정 I-20 발급, 졸업후 전과정 OPT 가능
- 저렴한 학비, 월 Payment로 낮은 부담
- 연방정부 장학금(Grant) 및 융자(Loan)가능(영주권 또는 시민권학생)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11종)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Email: info@aeu.edu



주안예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벨리채플에서 드렸다.

“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주안예교회, 창립3주년기념예배...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주안예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2013년 다우니에서 창립된 현재는 벨리, 풀러튼, LA 한인타운 세 곳 캠퍼스에 각각 채플을 두고 있다. 7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벨리 채플을 가득 채운 세 캠퍼스의 성도들은 지난 3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

최혁 담임목사는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전하고 "지난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부족한 자를 믿고 함께해 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목사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발자취를 따라 분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훈련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배에는 주안예교회 사역자들의 '부흥의 북소리' 연주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키즈워십, 한어권·영어권 청년 및 중고등부의 바

다워십, 하프 연주, 장로중창단의 특별 중창, 이 교회 솔리스트들의 사중창,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의 특송, 연합세션팀의 연주, 연합성가대의 할렐루야 연주 등 음악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순서가 준비됐다.

또 최혁 목사는 교회가 3주년을 맞이한 이번 주부터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 시리즈 설교 "The Church, 주 안에서 연결된 교회"를 시작했다.

김준형 기자

“PCUSA한인교회들의 고민”

전·현직 총회장...교단 신학적 성향과 문제점 고민 피력

미국장로교(PCUSA) 소속 한인 교회들의 연합체인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전·현직 총회장이 서신을 통해 PCUSA의 신학적 성향 및 논란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타내면서 한인교회들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교단 바로잡기가 장기적인 비전임을 피력했다.

전 총회장인 배현찬 목사와 현 총회장인 심평중 목사는 최근 회원들에게 첫 서신을 전달했다. PCUSA는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으로, 올해 222차 총회에서는 이슬람 지도자가 단상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로 인해 큰 혼란을 지냈다.

올해 총회에서 이슬람 지도자가 벌인 일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행동인데다 현장에서 미국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들의 항의와 이에 대한 지도부의 사과로 마무리된 해프닝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동성결혼 이슈에 이은 올해 이슬람 지도자의 실수로 인한 논란은 PCUSA 내에 소속된 한인교회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기에 충분하다.

올해는 동성애와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더 이상 동성애와 관련된 잘못된 결정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움직임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인교회들은 여전히 깊은 고민 속에 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NCKPC 전 현직 총회장들의 첫 서신에는 한

인교회들이 함께 염려하는 기도제목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서신은 "222회 총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성향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함께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한인교회들의 성장과 발전을 제시했다. 서신은 "다만, 교단 안에서 날로 향상되어 가는 NCKPC의 입장과 영향력을 통하여 교단의 한 축을 담당해 가야하는 우리들의 사명과 미래가 더 선명해져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서신은 "작금의 비기독교적 문화 변화에 따른 미국 사회의 흐름에는, 교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도전 앞에 선 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단 안팎에서 불어오는 적 그리스도적인 역풍은, 미국의 시민 종교(Civil Religion)였던 교회가 누렸던 역사적 공헌과 특권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신은 이와 관련,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이때에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개혁의 정신을 북돋아야 할 때"라면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46차 전국대회 및 총회가 국내외적인 교회 개혁과 세계적인 개신교 선교사역의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8·15광복 71주년 기념 연합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8월 14일(주일) 오후 4시 30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강신권 목사)에서는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 기념 연합예배를 개최한다.

이 연합예배는 한반도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민 1.5세, 2세 들에게는 광복의 의미를 알리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마련된

는 연합예배이다.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일시: 8월 14일(주일)
- *시간: 오후 4시 30분
- *장소: 세계야가페션교회
- *주소: 933 S. Lake St., LA, CA 90006
- *문의: 213-263-1364 (안기정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가 이명희 교수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한인교회...이명희 교수 초청 2016부흥성회 개최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LA 동부 지역에 위치한 할렐루야한인교회(담임 송재호 목사)에서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인 이명희 교수를 초청해 2016년 하반기 부흥성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부흥성회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 아래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초가 든든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는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의 집회가 진행됐다.

이명희 교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무장할 때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금 해설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말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주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2016 Fall / 2017 Spring

여수론 기독교학교 학생모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나와 나를 찾는 하나님의 품

학교안내

여수론 기독교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입니다. 믿음과 지식, 앎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목적입니다. 여수론 기독교학교는 경험 중심의 통합적 교육방식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학생들이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방침과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운 말씀과 지식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경험한 말씀과 지식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6:33 MORNINGS -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 마태복음 6:33

3P PERSPECTIVES - 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 - 하나님 나라의 목적 (Kingdom Purpose) - 하나님 중심의 사람 (God-centered People)

3S VALUES - 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 순전한 삶 (Sound Life) - 순전한 지식 (Sound Teaching)

세상의 영광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목적입니다.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교육의 근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나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순전한 복음은 건전한 성경관과 신학에 바탕을 둔 신앙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삶은 앎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인성 및 생활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지식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JESHURUN CHRISTIAN SCHOOL
www.jeshurchristianschool.org

info@jeshurchristianschool.org 315-474-8346 1800 E Genesee St. Syracuse, NY 13210

교장 지용주 박사
현 시라쿠스 한인교회(PCUSA) 담임목사
유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KWMC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부의장
선교사자녀 학교 설립협력기구 기구장
Advisor member of Northeastern Seminary's Advisory Council



시카고 휘튼칼리지 빌리그래함 센터에서 열렸던 2016다민족 선교캠프 모습.

“무슬림권 향한 세계교회 도움 절실히 요구돼”

인터콥선교회, ‘다민족 선교캠프’ 개최... 시카고 휘튼칼리지에서

미전도종족 전방개척선교를 수행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 인터콥선교회(한국 이사장 강승삼 목사, 미주 이사장 송병기 목사)가 개최한 <2016 다민족 선교캠프>가 지난 7월 26일~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1,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시카고 휘튼칼리지빌리그래함 센터(Billy Graham Center, Wheaton College)에서 열렸다.

현재 10/40장 이슬람권에 약 1,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인터콥선교회의 이번 집회에는 미주 한인교와 한인 2세를 비롯한 미국인, 필리핀,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 등 다민족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가하여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 예배 및 메시지와 강의

등 모든 진행은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로 진행되며 이 중 다민족 등 EM(영어권) 참가자 비율이 50%를 넘어서서 다민족교회가 세계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선교캠프 강사로는 이원상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원로), 최일식 목사(KIMNET 상임대표), David Ireland(뉴저지 Chirst Church 담임), Dr. Thomas Keinath(Calvary Temple International Assembly 담임),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본부장) 등이 나섰다.

특히 박바울 선교사(이집트 선교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교 최전방 현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며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중동·아랍권에 영적 변혁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선교사는 또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 주변국 터키와 레바논 등에서 무슬림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신 것처럼(마 28:18-20), 우리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선교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16 다민족 선교캠프에는 이 외에도 주제강의와 선교사 간증, 선택 강의, 선교지 현장 소식과 영적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선교지 문화와 삶을 체험하는 미전도종족 부스와 모임, 선교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인터콥선교회 제공]

하프타임60 영성세미나

축복된 100세 시대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시니어 위원회(위원장 이명근 장로)가 지난 6월 12일부터 7주간에 걸쳐 진행한 ‘하프타임 60 영성세미나’가 마무리됐다.

인생 후반전의 영성을 디자인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지혜롭게 나이 들기’, ‘축복된 100세 시대 준비하기’, ‘하나님의 전’, ‘신의 성품’, ‘사랑하는 가족’, ‘섬겨야 할 공동체’, ‘피니시 웰’ 등의 주제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미래를 향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회 시니어 사역 위원회를 담당하는 김재홍 목사는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제 지혜롭고 건 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연구와



하프타임 60 영성세미나.

준비가 필요하다. 인생의 60대는 젊음의 모습이 남아있는 마지막 모습이다. 이분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번 세미나는 교회 차원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선교적인 전도자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향후 완성도를 더욱 높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내용을 확대해 애틀랜타의 전체 시니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31일(주일) 참석자들은 그 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기초로 자신의 비전을 선언하고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수영 기자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28. 베드로가 질투한 요한

사도요한이 마가와 마테 그리고 누가의 예수복음서가 회람되는 동안에도 침묵하다가 긴 공백 뒤에 내놓은 복음서에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빠진 예수의 가르침과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있다.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예수와 함께 갈릴리를 걸었던 대부분의 이들이 사망한 지금까지도 요한은 살아 교회의 큰 어른으로 남아 있다.

그가 복음서의 마지막에 소개한 에피소드는 원래 유명하다. 부활한 예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허탕치던 베드로를 포함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 그물이 끌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고 떡과 생선을 먹인 뒤 베드로에게 세번 반복하여 내양을 먹이라며 예수가 잡히던 밤 세번의 부인을 만회할 기회를 준 그 일 말이다.

베드로 본인도 생전에 많이 언급되었던 일이다. 그런데 내 눈길을 끄는 건 요한의 기록에 이날 잡힌 물고기 숫자가 정확히 적혀있다는 것이다. 153마리. 부활한 예수임을 깨닫고 기쁨과 경황중에 조반을 같이한 제자중 누가 잡힌 물고기 숫자를 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허나 요한의 이 사소한듯 남긴 기록은, 내가 예수를 본적도 없이 그들의 증언에 의지하여 이 도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의 삶과 부활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 유명한 에피소드 바로 뒤에 적힌 기록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다섯 구절(제자주 - 요한복음 21장 20절이하)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다. 내양을 먹이라는 세번째 부탁 뒤 베드로에게 훗날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임을 예수가 예언으로 남기자, 베드로는 뜬금없이 뒤에 서있던 요한을 지칭하며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를 예수에게 물었던 모양이다.

그러자 내가 다시 돌아올때까지 요한이 살아 있든 아니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나고 예수가 답한 것을 요한이 기록해 둔 것이 아닌가. 베드로는 요한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감정은 질투심이었을 것이다.

예수생전 누가 천국에서 첫째 나를 다투던 두 주인공은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사도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대목에서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가 사랑한 제자”라고 적고 있다. 심지어 이 마지막 기록에서도 요한은 자신을 굳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한 자라 표현한다. 다할질에 천성이 남자인 베드로와 야심차나 여자같은 요한 사이에 예수를 누가 더 사랑했는지 경쟁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라니. 노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건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까지 자신의 예수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다니. 조금 유치한게 아닌가 싶다가 이내 든 생각.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유치함은 사랑에 빠진이의 큰 특징. 예수의 가르침이 그 무엇보다 다른건 인간이 아이처럼 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외로운 세상에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다.

29. 갈증

40대 어느 봄날. 목이 마르다./ 아담자손의 숙명인가. 오늘도 진득한 땀방울, 고단한 한숨/앞으로 오래 산다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다./신 앞에 엎드려 목을 축이나 이내 찾아드는 갈증./전 재산 팔아산 발에 묻혀있다는 보물은/착각일지 모르는데 외람된 의심./신과 이웃을 사랑하기 서툰 나는/그래서 더욱 마음이 불편하다./신을 가진 줄 알았는데 미안하고 부끄럽다./내속을 알리 없는 봄별은/나뭇가지 사이로 초록이 되어 내게 살랑 손짓한다./너무 생각이 많은 것인가. <계속>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Grace Mission University

Grace Mission University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학 박사 (D.Miss)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 선교학 석사 (MA ICS)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English Track • LA Extension Class • I-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LA 지역 입학설명회	
장소 및 시간	8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520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주요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인가소개 학위과정소개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소개 샘플강의 소개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혜택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추천 및 Grace 장학금 지급(해당자에 한함) 간단한 다과와 음료 준비

2016년 가을학기시작 : 2016년 8월 29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찾아오시는 길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격

베드로전서 5: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에서 베드로는 장로중의 하나라고 설명하면서도 모든 다른 장로들에게도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장로들이 절대로 교만하거나 어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김의 자세로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때 중에서도 젊은 신앙인들로 자신이 하늘나라 가기를 진정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격을 통하여 제목과 같이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신앙인격 수양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기대에 쓰실만하다고 인정되실 때에 그를 높이 들어 쓰시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교만하고 언행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당히 기피하고픈 대상으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또 그 인생은 버려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때에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교회 지도자(指導者)의 마음가짐: 고난의 증인(證人)
 본문속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즉 목회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자는 영광의 증인이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당하신 그 모진 행패와 수난과 고난들은 제자된 신분으로 지내오면서 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증거하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 할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듣는 사람들도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체면도 주시고 감동, 감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2. 교회 지도자(指導者)의 마음가짐: 청지기적 자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 떼는 내 양 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 떼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치도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발적인 의지와 사명을 앞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팔거나 또 무슨 직분이나 사역을 방자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양떼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 입술로만 교리적인 것, 사명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을 훈련, 교육시키려 하지 말고 목자 자신의 생활로 본이 되는, 보여주는 설교에 힘써서 양 떼로 그 목자의 신앙생활을 보고 본받아 참 믿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자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교회 지도자(指導者)의 마음가짐: 온유(溫柔)와 겸손(謙遜)
 5-6절 "젊은 자들이 이와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과 순종을 힘써 훈련하여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들어 크고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공작, 백작, 자작이 있고 후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는 공작이었습니다. 왕의 근친 중에 로드리스게라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직계후손이 없어 조카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로드리스게는 분명 자신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종으로 백성을 섬기기 위한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왕의 자리에 마치 자신이 오를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당히 위압적으로 건방지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포악하고 못된 짓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왕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생각하고 눈여겨 보고 있었지만 전혀 왕의 재목이 아님을 알고 왕위후보계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왕의 자질을 배우고 계율을 배우며 열심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백성을 섬기겠다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틀림없이 왕위를 계승했을 것인데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말미암아 왕위후보계열에서 배제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기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야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술에 취해 가기도 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가 사냥을 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그만 낭떠러지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다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골짜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곳에서 인간 자신의 나약함을 보

기 시작했습니다. 일국의 제왕이 될 꿈에 부풀었던 그가 평생 처음으로 대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에 스스로 위압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며 허약하기 이를데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스스로 막막함에 빠져듭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 아닌 나로 잘못 행세하고 광패와 교만을 일삼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함께 있던 사냥개가 주인을 종소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개를 따라 가보니 아주 조그마한 기도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수도원이었습니다. 나이드신 목사님이 은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을 할 나라가기까지 자기믿음을 알찬 결실로 채워가시기 위해 애써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와 함께 어떤 사람이 다가오자 쫓아 나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왕자라고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길을 잃어버려 이곳 종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곳이 너무 누추해서 있을만하냐고 해도 자기 같은 죄인이 장소를 탓할 이유가 없다고 답할 정도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이 터져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형편은 제 탓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며 밤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줌 드시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저는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저는 계속 낮아져야 합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어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하며 사흘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 목사님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동안 왕궁에서는 사라진 사람으로 인해 많은 걱정 속에 있었는데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과 같이 이전의 로드리스게는 지나갔고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격으로 겸손하며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아주 조용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정리하여 빈민촌에 나눠주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왕위에 올랐던 자가 병이 나서 죽기 전에 후임자를 세우는데 원로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로드리스게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원로원에서 모셔다가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런즉 겸손과 순종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쓰임 받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또 높이 붙들어 쓰실 재목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신앙인격을 온전히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고 느껴지며 전달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되면 너희를 높이 쓰시리라"(벧전5:6)는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6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ABHE 인가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16년 6월 27일자로 본교가 신청한 크리스천 상담심리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개설 승인"

모집 과정

신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 원격강의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개강 : 2016년 8월 29일 (월)
온라인 개강 : 2016년 9월 5일 (월)

ESL 개강 2016년 9월 5일 (월)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www.facebook.com/SLCS.EPT

강우중 교수 (wj kang@ptsa.edu)

1-20 발행

정회원 ats 정회원 후보

본교(PTSA)의 특징은,

5대주 (북미주,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의 글로벌 네트워크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주의적인 신학

기독교 인문학적 성찰과 훈련

첨단 테크놀로지와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생 밀착형 온라인교육

다양한 장학제도

졸업 후 진학과 사역지와의 분명한 연결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교단 목사교사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교사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푸른투어 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OUR.com

데이빗 강의 여행 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출발확정
제7차

대륙횡단 14일

로스엔젤레스 관광을 시작으로 라스베이거스, 3대 캐년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캐년 관광, 세계 최초 국립공원 옐로스톤, 솔트레이크, 화성에 온 듯한 배드랜드, 미첼시티, 위스콘신 주 메디슨, 건축의 도시 시카고, 클리블랜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세계의 중심지 워싱턴DC, 뉴욕

▶특별출발: 8/14 **\$2,100** (NY-LA 항공포함)

로스엔젤레스 관광을 시작으로 라스베이거스, 3대 캐년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캐년 관광, 세계 최초 국립공원 옐로스톤, 솔트레이크, 화성에 온 듯한 배드랜드, 미첼시티, 위스콘신 주 메디슨, 건축의 도시 시카고, 클리블랜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세계의 중심지 워싱턴DC, 뉴욕

\$230 상당의 옵션이 포함된 놀라운 혜택

1. 온광촌(캘리포니아 고스트타운)
2. 라스베이거스 야경
3. 수우족의 성지 크레이지 호스
4. 비람의 동굴(\$30/1인)
5. 하우스 온 더 락(\$40/1인)
6. 나이아가라 I-MAX & 스카이론 타워 (\$50/1인)
7. 나이아가라 HORNBLOWER 탑승 체험
8.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9. 엘파이어 스테이트 전망대







제이 김 동행
LA에서부터 모시겠습니다



푸른투어에서만 가능한 나이아가라 흥행특가

나이아가라/토론토 4일

선착순 30명! ▶특별출발: 9/2(금)
9월 2일 밤 출발~9월 5일 LA도착
노동절 연휴를 알차게 즐기세요!

\$949

 (왕복항공 포함)

1. 나이아가라 폭포 도보거리의 호텔숙박
2. 스카이론 타워에서 즐기는 특식, 3. 토론토, 나이아가라 관광
4. 토론토 왕복항공 이동 장거리 버스 탑승, 새벽기상 없이 여유롭게 나이아가라를 완전히 즐기는 절묘의 찬시
5. 선 제곱 아이쉬 마을, 6. 테이볼 락/ 월풀/ 윈예 학교/ 꽃 시계/ 수력발전소 관광
7. 세계 최상품, 나이아가라 특산물 REIF 아이스와인 시음 8. 나이아가라 온 더 락 레이크 관광

7일
\$849 ▶8/25

★응모기간: 2016년 7월 8일 ~ 10월 14일
추첨일: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본당/교회/단체/개인 15일 1차 추첨, 9월 15일 추첨하며 그외 모든사항은 10월 15일 추첨하며)

★응모처: 푸른투어 사무실, 한국일보 판매부스
(올림픽 갤러리 백화점 / 코리아타운 프라자 내 / 시티센터)
※사무실 내방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푸른투어 오픈기념 이벤트

6 **fitbit**

단풍 한국일주 10월 **\$2,560** (항공포함가)

▶특별출발: 10/20

전주/해남/순창/한려수도/남해/외도/경주/영덕/설악

예술과 자연의 만남 '세도나', 거대한함구 '그랜드캐년',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형성된 '글랜드캐년 & 파벨호수' 빛의 미술 '앤젤름 캐년', 나바호 부족의 성지 '모뉴먼트 밸리', 바람이 빚어낸 신비의 '아치스캐년', 모든 캐년을 모아놓은듯한 '캐년랜드', 협곡속으로 들어가다 '캐피틀리프', 붉은 침판들의 향연 '브라이스캐년', 웅장함의 극치 '자이언캐년',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이거스'

노동절 특선 345!

'하늘에서 즐기는 세계 7대 자연 비경, 레인보우 브릿지'

레인보우 브릿지 / 호스슈 밴드 3일 **\$345**

캐년/ 파벨 호수 (크루즈)/ 앤젤로프 캐년 / 호스슈밴드 (*\$150 상당 경비행기포함)

'마운트 위트니의 위트니포탈, 모로베이를 함께'

요세미티 / 타이오가 패스 3일 **\$345**

위트니 포탈/ 비숍 / 타이오가 패스 / 요세미티/ 프레즈노 / 모로 베이 (카약)

'서부해안 최고의 숨겨진 명소 빅서 이제 함께 떠나요'

빅서 / 피니클스 국립공원 3일 **\$345**

산타 바바라 / 빅서 / 카멜 씨티 / 레드우드(가차) / 파스 로블레스 (와이너리) / 피니클스 국립공원

'가차, 온천 그리고 와이너리, 낭만과 여유를 즐기세요'

샌디에고 가차여행 3일 **\$345**

샌디에고(가차) / 샌디에고 올드타운 / 리호아 (쇼핑) / 샌디에고 내항 (크루즈) / 줄리안 / 엘릴 핫스프링스 (온천) / 캘리포니아 와인 (와이너리)

서부본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구문 동행

신상품

라스베이거스/세도나 ▶8/8, 8/22, 9/2, 9/12, 9/26 3일 **\$249** ~~\$299~~ 신제품런칭가

- 하루 하고도 반나절을 세도나에서, 제대로 세도나를 느끼고 즐기세요!
- 라스 베이거스 1박/세도나 1박, 이제까지 없던 '럭셔리 세도나 여행!'

라스 베이거스/세도나/ 피닉스 ▶8/29, 9/26 4일 **\$399**

오코크리 캐년, 예술인의 마을 스콧스데일, 아리조나 미션, 사구어로 국립공원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 4! 5!

3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4	4대 캐년	8/28 출발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토	3대 캐년 + 앤젤름 캐년		
5	5대 캐년		5일	\$599
	5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8일	\$899	
	▶매주 월	4대 캐년 + 모뉴먼트 밸리		
	그랜드 캐년/라스 베이거스	3일	\$299	
	▶매주 수			
	미사부 실속 여행 ▶매주 수	6일	\$599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화/금			

LA 일일 투어 \$59

▶매일 출발 (50인승 전용차량, 한인 가이드 포함/ 중식 불포함)
올베라 거리/다운타운/다저스 스타디움/그리피스 천문대/힐리웃 거리
로데오 거리 (버스 차량 관광) /산타모니카 해변/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본부

리얼 캐나다를 본대 천 성 크루즈 포함! ▶매주 목 **\$1,099** ~~\$1,399~~ 신제품런칭가

실속 캐나다 동부 5일

토론토, 천성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나이아가라, 올드 퀘벡 관광, 아메리칸, 로워타운, 영국군캐년, 캐나다 연방 의사당, 와이타리 방문 -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까지!

한국본부

고국명문 No limit No 옵션 No 쇼핑
20년 이상 대형 다목적리무진 버스
최고급 호텔(미국), 지역 별미식 제공

전국 일주	7일	▶매주 토	\$2,199
서남부권	4일	▶매주 토	\$1,699
한려수도 일주	3일	▶매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4일	▶매주 월/금	\$1,499
미리 보는 행정 올림피아 강원권	3일	▶매주 수	\$1,549

퍼펙트 건강 검진(복합자 HS 알테르비던 중점)
- 리무진 서비스 - 강남 소재 호텔 숙박
플러스 퍼펙트 검진 \$470 (플러스 검진 Only \$350)
신체 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 간염, 흉부 X-ray, 소변 검사, 혈액 정밀검사, 감압성 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 내시경
골드 퍼펙트 검진 \$520 (골드 검진 Only \$400)
플러스 퍼펙트 검진 + 수면 측정 내시경

동부본부

미동부상품 ▶수/토
※ 항공포함가

오/직/푸른 (기간: 7/8~8/31)

나이아가라 폭포 뷰 (\$500 상당) 옥스 호텔 특급 숙박

동부 여행도 직접 운영합니다!

5	미 동부, 워싱턴DC, 나이아가라	5일	\$799	
6	미 동부/천 섬	6일	\$899	
	미 동부 5일 + 토론토, 천 섬	7일	\$1099	
7	미 동부/보스턴	7일	\$1099	
	미 동부 5일 + 보스턴, 뉴포트	8일	\$1199	
8	미 동부/천 섬/보스턴	8일	\$1199	
	미 동부/천 섬 6일 + 보스턴, 뉴포트	8일	\$1199	
	미 동부/천 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8일	\$1199	
10	미 동부/천 섬/보스턴/캐나다	10일	\$1299	
	미 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 뉴포트	10일	\$1299	

올랜드 특별상품 ▶매주 화 ▶특별출발: 9/3

올랜드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올랜드/마이애미 5일 **\$1,399** 6일 **\$1,499**

유럽

어떤 세계사 데이빗 강과 함께하는

스페인 일주 8일 \$2,299

▶9/19 스페인 3대 이색 특식 제공
8대 내부 관광지 포함

1. 3대 이색 특식
- 1 세계적인 마드리드의 프리도 미술관
- 2 유립 3대 성당 - 세비아 대성당 관람
- 3 알함브라 궁전, 4 메스카 데 사렌(내부)
- 5 산토 토메 교회, 6 플라타 데 성당
- 7 가우디 최후의 걸작 - 파밀리아 성 가족 성당
- 8 동화 속의 세계 - 가우디 구엘 공원

정통 서유럽 12일 **\$3,399**
▶8/8, 8/22, 9/5, 9/1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

정통 동유럽 10일 **\$2,999**
▶8/4, 8/18, 9/1, 9/15, 9/28
러시아/비엘리주즈키/쿠디베스트/비엔나

동-서유럽 20일 **\$5,199**
▶8/8, 8/22, 9/5, 9/19
러시아/파리/인테리칸/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비엔나 등

미니 서유럽 8일 **\$2,899**
▶8/8, 8/22, 9/5, 9/1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

꽃 보다 발칸 5개국 8일 \$3,099+항공

▶9/24,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제공, 입장료 포함
전 일정 특식 제공: 해물 파스타, 송어이리, 호이리계

스페인/포르투갈 11일 \$3,199

▶9/12, 9/26
리스본/세비아/코르도바/플레도/바르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3,099

▶9/12, 9/26, 10/3, 10/17
아스탄올라/카르도니아, 콘야, 안탈리아/피르칼레/에페소/데살로니기, 고린도/아테네

이태리 일주 7일 \$2,799

▶8/13, 8/27, 9/10, 9/24
밀라노/베니스/피사/피렌체/로마/폼페이

코스타리카

활력상용암 온천물로 즐기는 알칼리 온천원
백야스/희산/리피산/나미/폭포공원관광포함

4일 **\$850+항공**
5일 **\$825+항공**
6일 **\$1,090+항공**

하와이

퀸카피올라 호텔 4일 **\$799**
호텔 인 & 아웃 픽업 서비스 포함
호텔 부부 시대 관광, 호이후섬
일주 관광

매슈튼 와이키키 4일 **\$929**
하와이 허니문 3일 **\$1,349**

멕시코 로스카보스

하이트 지바 로스카보스 숙박 4일 **\$659+항공**
신혼여행/로망스 패키지
All inclusive 서비스

5일 **\$800+항공** 6일 **\$1,000+항공**
4일 **\$800+항공** 5일 **\$950+항공**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A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행사 둘째 날, 충신대 양지캠퍼스 100주년 기념예배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모습.

“헌재, 군 내 동성애 금지 합헌 선고” 그 밖의 추행에 대한 판결...동성애 처벌 위헌성 문제 아냐

군 내 동성애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오후 헌법재판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2012헌바258)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헌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선고했다.

구 헌법 제92조는 1962년 제정됐으며, '계간 기타 추행'을 1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9년 '계간(姦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위 구 헌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고, 지난 2002년 6대 2로, 2011년 5대 4로 이미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구 헌법 제92조의5가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2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변경하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강제추행을 별도 조항(제92조의3·4)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되면서 위헌소원에 휘말렸다.

한편 군 내 동성간 추행(항문성교)을 금지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합헌 결정을 놓고, 교계와 시민단체의 동성애 관련 활동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30여 년 간 군인으로 봉직하다 군 내 동성애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전역한 후 바른군인 권연구소를 세워 변호사와 영관급 예비역 동기들과 활동 중인 김영길 소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다는 점 자체가 아쉬웠다"며 "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법령 중 유일하게 항문성교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재판관 5대 4로 겨우 이겼다는 것도 안타까웠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법령이 애매모호하다'고 했지만, 제92조 내 다른 항목들 중 '항문성교'를 금지한 6항이 가장 명확했다"고 반박했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동성애 관련 활동가 일제히 환영 이제 저들의 '소돔성'인 종로와 이태원에 복음 전해야

한편 주위 측은 이번 선교한국 2016 대회에 대해 5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역사적 의미와 건강한 선교참여를 위한 동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일 ▶복음의 본질적 기반이 탄탄한 실천적 그리스도인들로 발걸음을 떼게 될 영적으로 준비된 4,0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것을 목표로 준비 ▶연합체가 준비하는 대회로 개별 단체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콘텐츠 확보 ▶대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현재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선배 선교사, 사역자들과의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강력한 도전이 이루어진다는 점(멘토 시스템, 선교한국 대회 참가자/현신자 모임, 선교현장 선교사들의 참여 활성화 등) 파악하여 실제화 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 등이 다.

홍은혜 기자

그는 "합헌에 반대 의견을 낸 네 명의 대법관이 있다는 점은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탈동성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요나 목사는 "오늘의 합헌 판결에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겨우 5대 4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현실 정치가 갈수록 동성애 옹호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들은 오늘의 판결을 '절반의 승리'로 자축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독교가 대세였던 유럽과 미국 모두 동성애 문제에 있어 실패한 이유는, 죄의 문제를 복음이 아닌 인권법과 정치적 문제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저들이 위헌소송을 또 다시 준비하는 동안 저들의 '소돔성'인 종로와 이태원에 진리의 빛, 곧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대용 기자

“성장하는 아시아 교회 속 신학의 역할과 과제 모색”

ATA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 총신대서 개최...34개국 3백여 신학자 참여

아시아신학연맹(ATA,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제14회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가 25~29일 충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양지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위에 선 아시아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ATA 총회 및 컨퍼런스에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 34개국 신학자 3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미래를 위한 선교전략을 모색했다.

첫날은 김영우 총신대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셉 샤오 ATA 사무총장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후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돼 총 5차례 세션에서 한국을 포함해 각 국가를 대표하는 신학자

들이 발표했고, 분과별 모임과 기도회, 패널토의 등이 마련됐다.

특히 총회 넷째 날인 28일 저녁 테레사 루아 박사가 3년 임기의 ATA 신인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필리핀 출신인 루아 박사는 취임을 직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학계를 이끄는 각 국가의 지도자들을 섬길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성령께서 아시아의 교회들과 함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라별 신학교육 기관들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일에 더욱 전문성을 기하고, 신학 교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그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또 목회 현장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아시아 교회들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집중

할 것"이라고 했다.

루아 박사는 특히 "예전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서구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 반대"라며 "이는 서구 교회들은 쇠퇴한 반면, 아시아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TA는 이러한 아시아 교회의 성장 배경을 분석하고, 신학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 세계교회가 동반 성장하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68년 싱가포르 범아시아 복음주의 회의를 계기로 1970년 창립된 ATA는 34개국 299개 신학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3년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모여 총회 및 컨퍼런스를 갖고, 아시아 신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하자”

'그런즉, 우리도!' 주제...1일부터 6일동안 세종대에서 '선교한국2016'



커크 프랭클린 총재 국제 위클리프

선교한국 2016 대회가 1일 세종대학교에서 "그런즉, 우리도!"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췌이 선교회 주관으로 6일까지 5박 6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첫날 커크 프랭클린 박사(국제위클리프 총재)의 저녁집회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커크 프랭클린 박사는 "삶은 한 시적"이라 말하고, "주님 주신 삶을 책임있게 살자"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도전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

게 응답할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커크 프랭클린 박사는 "예수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틀을 깨고 '밖'으로 부르신다"면서 "교회가 너무 편해서 예수와 함께 위험부담을 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물었다.

강연 후 참석자들은 개인별 성경 강해 목사의 시간을 가진 후 첫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2일부터는 오전 주제강의와 영역별 주제강의/멘토와의 만남 등이 계속되며, 선교사역 박람회와 상담, 특히 3일 수요일에는 '선교한국 한마당'의 시간도 마련된다. 주강사로는 커크 프랭클린 박사 외에 도 화중부 목사, 톰 린, 김용훈 목사, 이민용 선교사, 천민찬 선교사 등이 나선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선교한국 2016 대회에 대해 5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역사적 의미와 건강한 선교참여를 위한 동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일 ▶복음의 본질적 기반이 탄탄한 실천적 그리스도인들로 발걸음을 떼게 될 영적으로 준비된 4,0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것을 목표로 준비 ▶연합체가 준비하는 대회로 개별 단체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콘텐츠 확보 ▶대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현재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선배 선교사, 사역자들과의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강력한 도전이 이루어진다는 점(멘토 시스템, 선교한국 대회 참가자/현신자 모임, 선교현장 선교사들의 참여 활성화 등) 파악하여 실제화 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 등이 다. 홍은혜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신약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시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영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령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오프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출발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찬양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강산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이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기도회 오전 5:30 (월-금)
금요일에 오후 8:00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성경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Pinalist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올해 초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미국연합감리교 총회의 모습. ©UMC

“美UMC, 보수파 중심 친동성애 반대 협회”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활발하게 대변하는 목소리 기대

크리스천투데이는 최근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美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 성직자와 신학자 40여 명이 웨슬리안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이하 WCA)를 조직했다고 전했다. WCA 설립 소식은 6월 알려졌으며, 오는 10월 시카고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WCA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금과 같이 교단의 미래가 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감리교단에 밝고 성경적인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함께 일어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모든 구역의 성직자, 평신도, 교인들이 모인 연합체로서, 성경적인 관점, 웨슬리안의 활력, 정통 교리, 성경의 권위를 갖춘 사역을 알리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스 보에트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이 단체의 설립자 중 한 명인 버지니아 아주 월드니스커뮤니티 교회 케이스 보에트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류 교단 내 친동성애적인 활동에 반대하여 이를 설립했다”면서 “UMC 내의 역기능이 계속되고 더욱 증가하면서 WCA에 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교단의 공식 입장인 “교회가 동성애자들의 행위와 관계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신학적인 진보주의자들의 요구로 내부적인 논쟁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감독회의(Council of Bishops)의 권한으로 동성결혼 논쟁과 관련해 진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한편 총감독회의는 WCA의 설립을 교단법을 무시해 온 일부 친동성애자들의 움직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총감독회의에서 주교들은 “우리 교단은 극도로 취약하고 또한 매우 경쟁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 효율적인 교회 사역이 방해 받고 손상을 입어 안타깝다”면서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뿐임을 고백한다”고 했다.

그는 “WCA의 목적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활발하게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이라며 “WCA 회원으로서 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증거를 나눔으로써, 총감독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적인 감리교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UMC의 공식 규례서는 “동성애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고 기록돼 있으며,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WCA 설립을 지지하는 입장인 조지아주 모자이크연합감리교회 캐롤린 무어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규례서를 불드는 일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언약이 있는 교회다. 이 언약에 대한 공개적인 불복종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규례서에) 언급된 가치에 대한 책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헌금한 것 때문에 특권의식을?”

톰 S. 레이너 박사... ‘교회 장로로서 피할 5가지 기도제목’ 소개



톰 S. 레이너 박사 라이프웨이연구소

라이프웨이연구소(Lifeway Research)의 톰 S. 레이너(Tom S. Rainer) 박사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교회 장로로서 피하기 원하는 기도제목 5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첫째, 내가 교회 내의 중요한 재정적 지원자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이러한 태도는 내가 돈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내가 내 시간을 썼다고 말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교도소 교정사역과 같이 지역 교회를 통해 섬기는 사역은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사역이다.

레이너 박사는 “나는 6년 전 우편으로 첫 번째 AARP(전미퇴직자협회) 자료를 받았다”면서 “2년 전 나는 61세였다. 내 손자들 중 하나는 내가 화석화되었다고 말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나는 장로다. 지금 이 나이에 내 삶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를 내가 알아챘을까? 물론이다. 나는 더 느리게 움직인다. 나에게 있어 ‘미니마라톤’은 거실에서 부엌까지 달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난 사물을 다르게 본다. 내가 더 현명한지는 몰라도, 확실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나는 내가 교회 생활을 다르게 본다는 것을 인정한다. 실제로 가끔 나의 엄격한 태도에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이 글도 내가 너무 편해지거나 너무 안주하지 않도록 빨리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 나는 사역이나 예배보다 취미 여행에 관해 더 열정을 토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버스를 타고 브랜스, 미주리, 혹은 테네시 주의 개틀린버그(멋진 관광명소)로 가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일들에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게 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넷째,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보다 내 기호에 더 관심을 갖지 않도록 기도한다.

레이너 박사는 이어 “나는 5가지 구체적인 기도제목이 있다. 이는 나를 위한 것들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를 위한 것이다. 이는 내가 지속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도제목을 소개했다.

다섯째, 내가 비판적인 정신을 갖지 않도록 기도한다. 얼마 전 어느 큰 교회의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했다. 그 중 한 명이 모임 전에 내게 다가와서 “우리는 목사님이 빠르게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비즈니스 모임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레이너 박사는 “실제로 그들은 목사와 교회 직원들을 비판하기 위해 모였다. 나는 지속적인 비평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했다. 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한 자격으로 내 교회의 건강과 성장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2016년 제30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 등단 시상식



축하객 및 신인상 수상자, 회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기도예 홍정길 목사(두 번째), 말씀예 김신영 목사(다섯 번째)



신인상 시 당선자 김선민



신인상 수필 당선자 나두섭



신인상 수필 장려상 김성지



신인상 수필 작가 안호용



신인상 수필 장려상 김홍숙



봉사상 김용섭 장로



신인상 수상자들



신인상 소설 당선자 김승년



축하송을 부르고 있는 김숙영 교수



축도하는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시, 수필 부분 심사평을 하고 있는 김문희 작가



소설 부분 심사평을 하고 있는 김상분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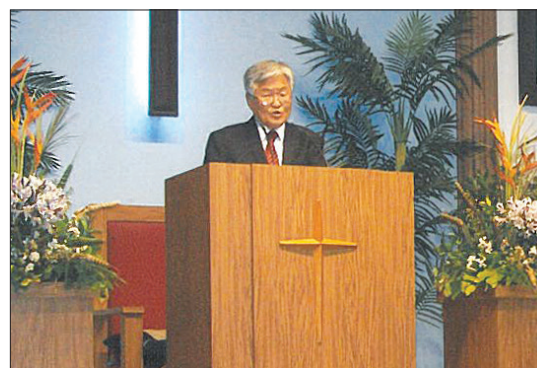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지윤 회장



사회자 이지현 수필가



신인상 수상자들과 함께한 임원진



축사하고 있는 최선호 목사



격려사하고 있는 최학량 목사

■ 성지순례 이야기(1)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이스라엘로 가는 길

이 글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스라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 앞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사람들에게는 영성으로 가는 깊은 안내서가 되었으면 한다. 서병길 교수와 함께 떠나는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영성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보자. -편집자 주



벳산에 있는 후세인 국경(요르단).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요단강가 알렌비 국경(요르단).

■ 들어가는 말

누구나 고향이 있고 고향에는 고향만이 품는 향기와 아련한 추억이 있다. 성년이 되어도 어린 시절의 고향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시절들을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시절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신앙의 고향인 이스라엘,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땅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고 싶고, 보고 싶어 오랫동안 기도하고 물질로 준비하여 오는 이들이 많이 있다. 고향이기 때문에 처음 오는 이도 언젠가 와본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

신앙의 고향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느껴서 후세에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순례자들에게 있다 (시48:12~14).

고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찾아와야 하는지 깊은 영성으로 보아야 의미가 있다.

■ 이스라엘로 가는 길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다.

먼저 비행기로 가는 길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유대산악 지역을 넘어 세펠라 지역으로 가다 50km쯤 가다가 만나는 사론 평야에 위치한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있다. 1996~97년 사이에 대한항공이 취항하여 한국에서도 논스톱으로 오는 비행편이 있었다. 그러나 I.M.F와 이스라엘 정치 상황 등으로 이스라엘정세가 불안하여 순례객들이 줄어들어 자연히 직항편은 없어지고 말았다.

현재 2016년에는 대한항공과 EL AL ISRAEL AIRLINES이 취항하고 있고, 11시간이면 한국에서 이스라엘에 도착 할 수 있다. 유럽노선을 이용하거나 대한항공으로 카이로로 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편을 이용하기도 하고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 쪽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저렴하고 빠른 시간에 들

어올 수 있는 비행기는 우즈베키스탄항공기이다.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노선간 거리가 가장 짧다.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 차이가 나며 섬머 타임 때는 6시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저녁비행기를 타면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비행기의 경우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지 다 이스라엘로 올 수 있도록 항공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미국 LA의 경우는 LA에서 엘 알 이스라엘 항공 직항편이 있고(보안검색이 까다롭고 요금이 비싸다) 미 국적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비행편도 있다. LA에서 주5회 직항이 있고, 15시간 25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뉴욕이나 중간 경유지를 이용하여 대서양을 건너 이스라엘로 간다. 이런 경우는 16시간 45분 이상 소요된다.

두 번째로는 배로 가는 길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처럼 볼 수 없는 방법인데 비행기로 유럽에 와서 배로 이태리나 그리스, 터키 등지에서 유람선을 타고 하이파 항구로 들어가는 길도 있다. 사실 배를 타고 다니면 멋진 낭만을 즐길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배편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국인조차도 배타고 이스라엘을 출입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는 차를 이용해 육로로 가는 길이 있다. 가장 빈번하게 또 순례객들에게는 코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순례객들이 육로를 통하여 들어간다. 육로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이 있는 홍해의 타바와 지중해변의 라피아가 있다. 라피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 지역 중 하나인 가자지구의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벌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국경이 폐쇄되기도 한다.

이 길은 수에즈운하를 건너 카이로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전에는 순례객들이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이곳을 통하지 않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고향인 이스라엘에 대한 향수있어 항공편, 배편, 육로편 등을 통해 이스라엘로 입국 이집트 타바 국경을 통한 입국이 가장 일반적

아 이러한 통로가 있는가 하고 의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이집트를 둘러보고 시내산을 거쳐 홍해변의 타바 국경을 거쳐 이스라엘에 입국한다.

또 하나의 육로가 있는데 바로 요르단을 통하여 들어오는 방법이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맺은 아랍국가로서 400km에 달하는 국경가운데 3군데의 국경을 통과하여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맨 남쪽에 있는 아카바 국경은 이스라엘에 오는 편보다는 이집트에서 요르단을 넘어갈 때 이용하는 통로이다. 이전에는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는데 언제부터인가 육로로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아카바로 요르단을 나가는 코스가 활용되고 있다.

갈릴리지역의 벳산 동편에 있는 후세인 국경도 들어오는 편보다는 나가는 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거쳐 요르단을 여행할 때 이용되는 코스이다.

반면에 여리고 동편에 있는 알렌비 국경은 요르단 여행을 마친 순례객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코스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알렌비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출국 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비자를 찍어주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이스라엘로 입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로나 육로를 이용한 이집트 타바 국경이 이용되므로 영성으로 가는 이야기 성지순례는 타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 이집트 타바 국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순례 따라서 필자는 이야기 성지순례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마쳐지면 입국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짐을 넣고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 조금 가다보면 바로 국경을 나가는 바리케이트가 있다. 이곳에서 보안요원이 버스에 올라와서 노란 종이(입국카드)를 거둬간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스라엘에 입국하게 된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이집트와 전혀 다른 분위기와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면 된다. 뒤엎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쫓대를 향하는 경주자처럼 달려가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의 땅으로서 무한한 감동을 주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만끽하면 된다.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모든 독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계속>

◆서병길 목사는 전북 전주대학교 법학사 및 행정학 석사,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이스라엘 역사 및 히브리어 수학, 플러션교대학원 선교목회학 박사이다.

GMS 이스라엘 선교사로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사역하였고, 임마누엘 대학교, 센트럴 신학대학교, 순복음 직영신학교에서 구약과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다니에에 있는 골든스테이트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석사를 취득하고 CA 한의사 면허를

받은 후 우리한의원을 운영하며 새하늘선교회와 이스라엘선교회를 동시에 섬기고 있다. 서병길 목사. 이스라엘선교회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FDA IND임상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의원 **Zo'e 조애**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원형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 제1한점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인(심내외, 차량), 제작, 현수막인쇄 전문

- 전도용품 세트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 세가지 및 방문지 선물을 찬양, 실교시디하면
-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 원형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교/회/렌/트

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엌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 91 근처)
 Tel: (626) 203-8008, (562) 677-60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 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응전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 9 1/2 이상, 중(M) 9-6 1/2, 소(S) 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영병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게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한수희 칼럼(11)

마음의 상처 다스리기(3)

우리 주위에는 내 탓의 달인들이 있다. 그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과 연관시키며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전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도 모든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고통 받기를 자처한다. 그로 인해 상처에 취약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기분, 태도, 돌연한 행동의 변화가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몸이 아파서 약속을 미뤄야겠다는 연락을 받을 때 나랑 만나기 싫어서 폐병을 부린다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불안해 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기준을 지켜나가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쫓기에 급급하다.

이런 생각과 행동의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완벽주의, 그리고 열등감이 숨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신호를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자책감이

심해지고, 부정적인 자기상이 굳어져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지도 모르는 불안이 높아지며, 많은 일에 자신감을 잃고 모든 일을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확률 역시 높아진다.

내 탓의 달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되 그 불완전함을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등식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며, 존재 자체로 그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불안한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기를 간곡히 권한다.

그러나 하면, 남 탓의 달인들 역시 있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상처를 미묘하게 권력으로 이용하여 주위 사람을 조정하려는 숨은 동기가 있든, 과거의 쓰린 경험 때문에 심리적 방아쇠(trigger)가 고장 나 있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며, 결국 자신에게 심한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내 뚫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분노와 비난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며, '어떻게 그가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질문 대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상담실을 찾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상담실을 방문하지, 내가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괴로워서 상담을 받았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이 주는 상처와 받는 상처를 분리하지 않고 무조건 상처받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어딜 가도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왜 자꾸 남 탓을 하며 화를 냈을까? 화를 내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그 질문 대신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너무 아파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자신이 아프다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대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버럭버럭 소리지르며 화를 내는 상대를 볼 때 그 내면에 있는 아픔을 바라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은 너무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 범주를 넘어서도록 남을 탓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상처로 인한 고통과 슬픔, 두려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든 이 감정들을 감추려고 한다. 인정하면 자신이 상대보다 약하다

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수치심, 두려움을 격렬한 분노로 표현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것으로 대처한다.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분노하고 경멸하는 쪽을 택한다. 상처받은 고통과 두려움,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일종의 몸부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파괴적인 분노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다.

내가 상처받고 고통 받는 것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지으려고 하지 말자.

대신에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그저 잠잠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제발 갖자.

책임 소재를 따져서 분노의 대상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타인에게 돌리는 대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고 보듬어 보자. 부디 하나님과 함께...

•김광연 칼럼

‘김영란법’ 통과와 클린 사회(Clean Society)

◆윤리의식과 경제성장의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련과 전쟁 그리고 제국주의의 열강 가운데 강한 애국심과 정신력으로 버틴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유례가 드물 것이다. 그 만큼 아픈 기억 속에서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고 마침내 이 사회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전쟁 후,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 선진 국가들과 견줄 만큼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과거는 너무 어두웠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무조건 잘 살아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했던 민족성은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빼어난 폐기물을 남겨야 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이란 교과서에는 '윤리의식'이란 단어를 없었다. 그만큼 윤리의식의 부재상황 가운데 경제 성장 과정은 부패와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시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 현재 한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는 얻었으나 정신적 빈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 사회는 투명한 과정과 절차보다 성장을 위한 결과가 중요했고 마침내 '결과지상주의'를 낳고 말았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이 마침내 오랜 논쟁 끝에 헌법재판소의 합헌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한국의 윤리의식의 부재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을 외면했다. 성장과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윤리적 판단과 의식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이 비리와 부정 그리고 청탁과 뇌물로 병들어 가고 있었다. 특히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고위 공직자와 언론인, 교육학자를 포함해서 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비리와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즈(J. Edwards)는 온전한 도덕적 삶은 인간이 만든 규칙과 법 체제에 단순히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규칙과 제도를 넘어 포괄적인 마음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다.

예수님도 당시 율법자들을 비판하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예수는 마음의 행동이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온정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올바른 것과 도덕적인 것이 외부의 제도나 규칙에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따르기 이전, 마음과 타자에 대한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친다.

마이클 샌델(M.Sandel)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는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샌델을 세



김광연 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

계 석학 반열 이상으로 대접하는 시대가 있었다. 당시의 인기가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한국 사회가 그 만큼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과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그동안 사회 시스템의 투명하지 못한 과정과 공직자들의 비리 등으로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빈익빈 부익부, 불공정,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의란, 윤리, 합법성, 법률, 자연법, 종교, 공정한 등 윤리의 위배에 따른 처벌 등에 바탕을 두고 내리는 도덕적 옳음(rightness)의 개념"으로 보았다. 샌델은 정의 속에 특히 '분배 정의'를 제시하고 형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덕(virtue)과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이 정의로운 것이라 제시했다. 샌델이 말한 공동체의 덕은 개인의 지나친 행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에 주목했다. 샌델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패와 청탁이 없어야 하고, 공정한 분배에 따른 정의로운 사회

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과 클린 사회(Clean Society)

헌법재판소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작업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제 한국 사회는 부패척결과 부정청탁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클린 사회(clean society)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회는 제도적 장치와 규제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비 이후 보편적인 인류애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보다 더 성숙한 도덕적 사회는 제도나 벌금 때문에 '윤리적 삶(ethical life)'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해 주고 돕는 '사랑'과 '보살핌'에서 비롯된 윤리의식이 자리 잡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나의 존재감이 소중한 것처럼 타자의 존재감 역시 소중하고 나처럼 그들도 대우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마틴 로이드 존스

이안 머레이 | 복있는 사람 | 799쪽

탁월한 전기 작가 이안 머레이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만났다. 저자는 자신이 이전에 쓴 로이드 존스의 전기 두 권을 재구성하고, 압축하고, 부분적으로 새롭게 재집필하여 오늘의 세대를 위해 내놓는다. 기존의 저서가 집필된 이후 로이드 존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뒤따랐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숙고를 덧붙였다.



구약성경의 정수

트렘퍼 롱맨 III | CLC | 3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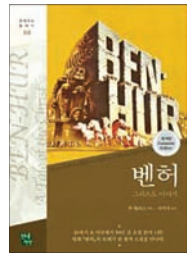
구약성경의 메시지에 익숙해지고 구약성경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성경공부 교재이다. 구약성경에서 발췌한 17가지 본문을 4가지 항목을 통해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메시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데 유익하다.



벤허(완역판)

루 윌리스 | 현대지성사 | 813쪽

윌리스가 『벤허』를 쓸 당시만 해도 소설은 단순히 '오락적' 요소로만 간주되어 논픽션보다 저급하며 도덕적으로 교훈적이기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사실에 충실하게 심혈을 기울인 이 작품으로 훌륭한 소설 작품은 오락적인 재미를 주는 동시에 교육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책의 모티프는 성서 이야기에 기인한다.



살아 있음

가시와기 데쓰오 | 규장 | 248쪽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평안해 보일까?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애 말기 환자들을 돌본 호스피스 의사의 감동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생명'에 대해 40년간 크리스천 호스피스 의사로 2천 5백명의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며 느낀 소중한 깨달음을 따뜻하게 풀어낸다. 또한 그림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수채 캘리그라피도 돋보인다.



REVIEW

구입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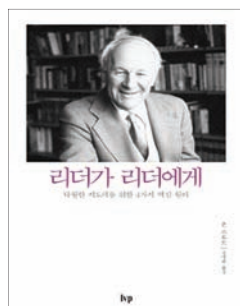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터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탁월한 지도력을 위한 4가지 핵심 원리”

존 스토트는 어떻게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곧잘 한계에 직면한다. 사명은 크고 무겁지만 이를 감당할 능력은 보잘것 없다. 크든 작든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선 리더에게 사역은 여간 녹록하지가 않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는커녕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리더들을 옥죄는 수많은 문제들에 시달리다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염려와 불안이 엄습한다. 그러나 리더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단지 연약한 개인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루어야 하는 영속적인 도전이다. 한때 한국교회의 리더로

세간의 주목을 받던 이들 중에 이러한 도전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실망스럽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추락한 인물이 적지 않다. 이토록 오래되고 날마다 새로운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존 스토트는 겨우 29살의 나이에 영국 런던의 올 소울즈 교회의 관할 사제로 임명받아 30여 년간 강령하고 혁신적인 목회 사역을 수행했으며, 반평생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리더라고 불리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았다. 존 스토트는 어떻게 한결같이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리더가 리더에게』



리더가 리더에게
존 스토트
MP | 124쪽

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이 책은 1985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국제복음주의기독교학생회(IFES) 남미 지역 간사 수련회에서 존 스토트가

했던 일련의 강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귀중한 강의안은 30년 만에 새롭게 발굴되어 2014년에야 영어로 처음 출간되었으며, 이번에 한국어 번역판이 출간됐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는 리더가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4가지로 짚어내고, 탁월한 성경 주해와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예화를 더하여 리더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돌파해 나갈 리더십의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이에 더해 존 스토트의 디모데였던 마크 래버튼과 코리 워드머의 이야기는 존 스토트의 가르침과 실천이 실제로 얼마나 통합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생생한 증언

이다. 또 부록에는 존 스토트가 사역, 리더십, 섬김이라는 주제로 쓴 글이 발췌되어 보다 섬세한 논지도 볼 수 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 리더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4가지로 좁히고 이를 풀어 나갈 원리와 방안을 제시한다. 즉 압박감을 견뎌 내는 '낙심 극복'의 원리, 영적인 생기를 유지하는 '자기 훈련'의 원리, 사람들을 존중하는 '관계'의 원리,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되는 '권위'의 원리를 전한다. 짧지만 알찬 이 책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 이영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주정부 허가: MTR-190586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Fully Insured & Bonded

[북뉴스 칼럼]

“상처의 치유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는다. 이러한 상처가 우리의 영육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상처가 심화되면 한(恨)이 되어 급기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참 많은 시련들을 겪어 왔다.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기를 펴지 못한 때가 많았고,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 이웃나라 일본으로 인해 많은 시달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한(恨)이 많은 것 같다. 서양 사람들은 낙천적인 경우가 많아서, 상처를 깊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가 만난 필리핀 사람들만 하더라도, 자신의 상처를 가슴에 쌓아두고 살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무척 가난하지만 행복지수는 대단히 높다. 일가친지들을 초대해 파티를 즐기고 함께 담소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다. 그만큼 상처를 안에 쌓아두기보다는 풀어버릴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의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한 채 가슴에 쌓아두고 사는 것 같다. 우리는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수많은 대인관계를 통해 오는 상처들을 한(恨)으로 발전시키는 듯하다.

이 한(恨)을 풀기 위해 어떤 이는 취미생활이나 모험을 즐기거나, 격한 운동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도박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인 세계로 들어가지만, 옛날 간도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과연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일까?

우리 인간들의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동력이 있어야 한다.

필자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할 때 아주 흥미 있는 소설을 읽은



채천석 대표
크리스찬북뉴스

적이 있다. 조지 엘리엇이라는 영국 소설가가 쓴 《사일러스 마너》라는 책이다. 그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일러스 마너는 동네 교회의 두 회계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 교인 중 한 사람과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헌금이 분실되었고 이 분실된 헌금이 사일러스 마너의 집에서 발견된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사일러스 마너를 동네에서 내쫓았고, 그는 약혼녀와도 헤어져야 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자신의 약혼녀가 또 다른 회계 집사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서 충격에 빠져, 그는 베툼 앞에서 옷을 짜며 남은 생을 살게 된다. 그는 친구의 배신을 곱씹으면서도, 옷을 짜서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 마음의 상처를 달래게 된다. 그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눈 오는 겨울 날 한 아기가 그의 집으로 기어 들어왔다. 그가 밖으로 나가보니 한 아주머니가 눈길에 쓰러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고, 아기가 죽은 엄마의 품을 빠져나와 사일러스 마너의 집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일러스 마너는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직접 키우기로 한다. 그는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됐고, 아기로 인해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때까지 모아둔 돈을 아기와 이웃을 위해 쓰기로 한다. 이리하여 그의 망가졌던 인간성이 다시 회복된다. 소설에서 조지 엘리엇은 아기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전한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도 상처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이 상처가 점점 심화되어 한(恨)으로 자리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 한이 우리의 육체까지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려 놓으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한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섯이나 만나서 쓰러린 아픔을 겪었다. 그녀는 동네 아낙네들과 같이 물을 길러 다니지 못할 만큼 소외돼 있었다.

이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 당장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사실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듯 전도에 결실이 맺어졌다는 것은, 이 여성이 자신의 상처로 인한 한을 풀고 신명나게 살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한을 풀어주고 우리를 신명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와 한을 극복하고 힘차게 살게 하신다. 그러나 그 옛날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던 우리의 신앙이, 요즘은 너무 복잡해졌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라는 우리 믿음의 토대였던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신앙은 사실상 매우 단순하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문제를 치유하실 분이란 고백이 기독교 신앙이다. 젊었을 적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들어가 예수님을 찾던 그 신앙이, 요즘은 왜 이리 낯설게 여겨질까?

요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연한 교회의 문제들도 그저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문제까지도 예수께서 친히 치유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식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북스리뷰]

“심대들을 위한 쉬운 인문학”

주도적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꾼 인물들의 삶 소개



심대를 위한 이지 인문학
최민성
디스커버리미디어 | 232쪽

인공지능시대에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최근 출간됐다.

한신대학교(총장서리 강성영) 한중문화콘텐츠학과 최민성 교수는 지난 7월 25일 <심대를 위한 이지 인문학-세상을 바꾼 다른 생각 15가지>(디스커버리미디어, 232쪽)를 펴냈다.

최근 인공지능이 화제가 되면서 미래에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사람만이 익힐 수 있고,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최 교수는 공부, 창의성, 꿈, 생각의 힘, 자존감, 관계 맺기 등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인문학 주제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공자, 맹자, 사마천, 유비, 제갈량 등 스스로 새로운 비전을 창조하고 주도적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꾼 인물들의 삶을 담고 있다. 책 속 인물들의 삶에 접근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힌트와 깊은 영감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라 최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이 책은 ‘갈택이어’, ‘절영지회’, ‘관포지교’ 등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고사성어에서 가려 뽑았다. 고사성어에서 뽑은 인물과 주제에 사건과 스토리를 입히고 드라마적 요소까지 보태 극적이고 몰입감이 남다른 스토리텔링을 완성한 것. 글을 대화체로 구성해 마치 멘토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심어주며, 주제와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뇌리에 자리 잡게 된다.

최민성 교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과 다른 세상에서 살기 바라는 마음에 선인들의 지혜, 유익한 이야기, 고사성어의 틀을 빌려 제 마음을 전했다”라며 “이 책으로 아이들의 비전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짐작은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인도 선교의 두 갈래 길 제시”



두 갈래 길
이계절
말일서원 | 200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이다. 서양문화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지문화를 깊이 존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운동이다.

현지 기독교인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쌍쌍(가정교회), 현지 용어 사용하기, 이야기로 예수님 전하기(스토리 텔링) 등 현지 문화를 이용한 성육신적 전도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은 현지인들에게 깊이 들어가 가까이 친구와 멘토가 되어 주는 모습, 제3자로서 비난이 아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기도로 섬겨주는 태도,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모습, 그리고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혜를 보여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이계절은 현재 한국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로 인도 바라나시에서 가정교회개척선교를 하고 있으며, 최전방선교회(SOFM, 합속 3개월) 학교장으로 사역하고 있고, 최전방선교 코디네이터(조정가)도 돕고 있다. 이영인 기자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체로 진행된다. 둘째, 이 책은 인도 선교 실패의 원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이 책이 흥미진진한 이유인데, 서구문화에 중독되어 인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문화 전도사’일만을 하던 사람들이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마침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인도 선교의 방법으로 서양의 길과 성경의 길,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 박파 운동은 자신의 문화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40면 / 11,000원

안나가? 가나안!

신앙의 왜곡과 일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대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겨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 소강석
지음 —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사탄의 권력배상
사타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 상의 정복하라
레위기의 신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거룩의 재발견
269면 / 11,000원

생명의 언어
생명의 언어
317면 / 13,000원

글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글란.글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glan.com.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Pastors Can Help to Prevent Further Cases of Domestic Violence, Too

Non-profit to provide sponsored training program specifically for pastors, seminary students

BY RACHAEL LEE

Domestic violence is an issue that strikes close to home for many in Los Angeles, particularly in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ccording to an LA Times report in October of 2015, police in Los Angeles respond to an average of 48,000 calls regarding domestic violence each year, and 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study published in May of 2015 says immigrant Korean families are most likely to experience domestic violence out of all Asian American ethnic groups.

As a result, pastors are more likely than not to encounter a domestic violence situation happening within the homes of their congregants. But are they prepared to handle the situation wisely?

A non-profit in Los Angeles will be providing a sponsored training program this fall to equip pastors and seminarians with the knowledge they need to not only provide appropriate help to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ut also be able to spread awareness of it and help prevent further cases.

The training, called the '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 program, is organized and led by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and spon-

sored by the Blue Shield Foundation. Though this year's class for the 40-hour training program had already been selected, the Blue Shield Foundation has provided additional funding for two more pastors to be added to the class. Normally, such a training program would cost \$400 per student, KFAM says.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learn more on topics including the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violence in dating among teen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erpetrator; counseling and support for the victim; safety measures; legal support; and others. KFAM is an officially recognized training facility by the state, and those who complete the training will receive certificates of completion.

The training will take place in two terms, with the first term taking place between August 12 to September 2, and the second taking place between October 19 to November 9. Participants must attend both training terms, and sessions will take place on Wednesdays and Fridays between 1 to 4 PM.

Those who are interested must apply by August 7, and must submit a resume and cover letter to dkim@kfamla.org.



Rev. Catherine Lee-Park and Rev. Danny S. Park will be launching Campus Compass Mission Church in the University of Georgia this fall.

An 'Alternative' Form of Church Within the College Campus

BY ANDERSO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A church for Korean American students in the University of Georgia (UGA), located in Athens, GA, will be launched this fall, called Campus Compass Mission Church (C2M). The first worship service will be on August 14, and will take place in the Presbyterian Student Center. Pastor couple Rev. Danny S. Park and Rev. Catherine Lee-Park, who have been serving younger and older adults both in Korean and multi-ethnic churches for more than 25 years, will be serving as the lead pastors of the church.

"There are about 1,000 Korean American students at UGA (ex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but they don't have a place to worship," the couple said in an interview, explaining that that became the reason they decided to begin the C2M ministry.

"Two people in their fifties trying to serve and raise up young twentysomethings on campus is not an easy task, with the age and culture

differences," said Catherine Lee-Park. "We have been aware of the situation in the UGA campus and praying about it, waiting, and thinking, 'Some day, someone would come here.' But God placed conviction in our hearts and made our circumstances so that we had no choice but to come here ourselves."

Calling C2M an 'alternative church' for those whose church involvement may be hindered by distance or proximity, Catherine Lee-Park explained that she and her husband aim to minister to those students on campus who may have gone to church with their parents, but stopped attending once they were on their own in college; those who may want to go to church but may not have a car or transportation means to go to church; or those who do not have any faith at all.

For the first year, the two pastors plan to focus on worship and settling down, and then slowly begin what they call 'life to life' discipleship. They also plan to do leadership training with the students, so that by the time they graduate, the students would be depend-

able leaders to serve the church, whether C2M or any other local church. Hence, the two lead pastors decided to make the church non-denominational, to allow the students to go on to any other church of their choice.

"Many Korean churches migh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ampus ministry, but may find it difficult to directly participate in it because of distance or financial reasons. We may be the start, but we don't think of this as our church. We are simply the ones who are starting things -- and once the ministry sets its foundation in about five years, we believe it's also our role to help the younger and even more capable ministers who will come after us to be prepared to serve," the two pastors said. "If the churches in Atlanta could work together with us for this one purpose, for this ministry for the next generation, then four years later, these students will return to their home churches having matured much more spiritually. Please pray for us, send your children to us, and support us financially as well."

Over One Year After He Was Stabbed by a Stranger, One Campus Ministry Staff Continues Sharing the Gospel

BY SE KYU JANG
TRANSLATED BY RACHAEL LEE

Over a year after an accident that almost took the life of Eugene Choi, a video in which Choi shares his testimony of the ways he has been encountering God throughout the recovery process has been touching the hearts of many people.

In May of 2015, Choi was receiving training as a new staff of SOON Movement (also known as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and was near the ministry's previous Los Angeles office location, when a stranger came up behind him and asked, "Are you Korean?" and stabbed Choi five times. Choi, whose lung was punctured and

spinal cord was lacerated, told the stranger, "Believe in Jesus." Since then, Choi's life was never the same. But he has been carving out a path of even greater hopes and dreams than before.

Choi (26), who has been serving as a staff with SOON Movement for about one year, has also been serving on the ministry's worship team, playing electric guitar. I spoke with Choi on the Internet on July 28, and through his responses, I was able to feel the powerful work of the Holy Spirit.

"As much as it was painful,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experience God's love toward me, and I think I was able to experience his grace and blessings that much more," said Choi, referring

to the recovery process. "It has been hard, but I've been crying to God and depending on Him a lot, telling Him how I honestly feel."

Choi, who said his favorite verse in the Bible is Hebrews 12:2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said that he will continue to focus on physical recovery, and to serve on college campuses as a staff.

Currently, Choi is serving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CSUF), sharing the gospel and leading students in discipleship training.

"I'm ready to go wherever God

leads," said Choi. His words in the video testimony are powerful:

"I feel very useless, sometimes abandoned. Many times it seems like I have no future. So I resent the perpetrator, but I know that God loves him too. And I was thinking, there might be nobody who can pray for him, except me."

"So there's always sinful nature versus heavenly nature versing each other. I want to hate him, versus I want to love him. Nowadays, I ask God a lot of questions, but one of the questions I asked is, 'God, what can I do?' And God asked me back, 'Eugene, what do you have?' And I looked down, and I looked at my body, and I told God, 'God, this body is the only thing I have



(Photo courtesy of Eugene Choi)

right now. Broken, disabled, and it's useless, but will you still take it and use it? The only thing I have right now is brokenness. Broken life, broken body. But will you still use it?"

Asian Americans to Gather for Interfaith Prayer Forum Ahead of Presidential Town Hall

BY RACHAEL LEE

An interfaith prayer forum for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will be taking place in Las Vegas on the morning of the Asian Pacific Islander (API) Presidential Town Hall on August 12.

The prayer forum, which is hosted by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and other faith leaders, will be at the Caesars Palace Hotel from 9 to 10:30 AM, while the Presidential Town Hall, hosted by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APIA) Vote and the Asian American Journalist Association (AAJA), will be at the same location from 1 to 4 PM. Both events are free, and

presidential candidates Hillary Clinton and Donald Trump have been invited to speak at the Town Hall meeting.

"The API Presidential Town Hall Interfaith Prayer Forum is open to all, and is aimed at providing voice for AAPIs from faith-based and moral perspectives," said KCCD in a statement. "We invite you to join us to pray for our nation, our nation's leaders and for the upcoming election in November. After the Town Hall session in the afternoon, we plan to develop faith-based responses to the issues raised by the AAPI community. We welcome leaders of other faith traditions to join in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this event."

Christianity Daily Inaugurates First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Reverend David B. Oh, the senior pastor of Southern California Bethel Church in Buena Park, was inaugurated as this newspaper's first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I will do my part in the background to help Christianity Daily to share about Jesus, to help the churches and members of the church who believe in Jesus to become one, and to rebuke but also lead the world by sharing the gospel," said Rev. Oh during the inaugural ceremony which took place on July 31 at Southern California Bethel Church.

Leaders of several Korean Christian organizations were gathered at the inaugural ceremony,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the vice



Rev. David Oh (left) and Christianity Daily CEO John Lee (right) pose for a picture during the inaugural ceremony on July 31.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an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Oh graduated from Sungkyul University in South Korea, and also

studied theology 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zusa Pacific University, and Housto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nd has served as a pastor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for some 40 year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Koreatown Community Organizers Advocate for Community Center

BY CHRISTINE KIM

A number of Los Angeles-based non-profit organizations along with members of the community gathered on Tuesday, August 2 to garner support for a community center to be included in the layout of a development project which includes new office spaces and apartment units in Koreatown.

The project is to be constructed on Vermont Avenue and Shatto Place between 4th and 6th Streets.

"Koreatown is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areas of the city, yet is among the most park-poor and community-resource poor areas," Lois Arkin, founder of Cooperative Resources & Services Project (CRSP), the developer of Los Angeles Eco-Village, said. "It is also one of the most polluted areas with a high population of children and seniors."

A parks assessment report showed that Koreatown has a lack of parks. Koreatown currently has 0.1 park acres per 1,000 people, which is lower than the Los Angeles County average of 3.3 park acres per 1,000 people.

The proposed Koreatown Arts & Recreation Center would be a 30,000 to 40,000 square-foot facility consisting of a pool area, basketball area, and



Advocates for the Koreatown Arts & Recreation Center hosted a press conference on August 2.

various spaces for senior activities, performing arts classes, sports, and fitness programs. It would also accommodate after-school programs for students attending LAUSD elementary and middle-schools in the neighboring area.

The project has currently secured one million dollars of the 10 million needed to make the recreation center a reality. An L.A. County Board of Supervisors meeting will be held on August 9th, a meeting which advocates hope will secure the final vote to approve the com-

munity center as part of county's redevelopment plan.

"There will be a public comments section that will be made possible in Korean and Spanish during which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directly connect with the board," Steve Kang,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said. "We believe it will be approved on Tuesday and we need community members to attend the meeting to show their support for the community center."

Immigration Reform Advocates and Government Officials Encourage Asian Community to Seek Relief in DACA

BY CHRISTINE KIM

On Thursday, July 28, advocates of immigration reform and White House officials gathered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for the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community and to encourage those eligible to apply for the program.

A similar program was announced by President Obama via executive order in 2014 called the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or DAPA, that would have offered protection from deportation and a renewable three-year work permit to parents with children who are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DAPA, however, was blocked by the Supreme Court's 4-4 ruling in late June of 2016, resulting in a non-decision that affirmed the lower court decision to block the program.

The gathering was held about a month after the Supreme Court's non-

decision and advocates expressed that they wanted to reassure community members that the 2012 DACA program is still in place.

The 2012 DACA program allows eligible undocumented individual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young children to receive work permits and temporary exemption from deportation.

According to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over 1.1 million people in the U.S. are eligible to apply for DACA.

Within the AAPI community, over 130,000 undocumented individuals are eligible to apply for the program, according to a 2014 survey by the U.S. Census Bureau. However, only 14.6 percent of those eligible have applied.

"We want to know why these numbers are so low," said Reva Gupta, Senior Policy Advisor at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here are approximately 138,000

undocumented AAPIs in Los Angeles County, 16,000 of whom are eligible to request DACA, according to MPI. The largest populations come from the Korean (6,000), Chinese (3,000), Filipino (3,000), and Indian (1,000) communities.

"For DACA recipients, two out of three have found jobs with better pay and over half have found work that better aligns with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DACA recipients also saw a 45 percent increase in wages," Gupta said, referring to a recent survey by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th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Martha Flores, Chief of Staff at the Los Angeles District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warned applicants from seeking assistance from those perpetrating immigration scam, encouraging those interested to seek legal advice from authorized personnel and to visit uscis.gov for free resources.

Most Generous Cities in America Donate Actively Through Churches, Says Study

A recent Barna study compiled a list of the most generous cities in America, and comes after the lists that Barna published earlier in 2015 regarding the most Bible-minded cities, church-less cities, and post-Christian cities.

Cities that register the highest percentage of donations are the same as the cities where people give most to churches, the study found.

The most generous city was El Paso in Texas where 92 percent of the residents donated to charit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followed by Lexington (91 percent) in Kentucky, Memphis (90 percent) in Tennessee, Charleston-Huntington (90 percent)

in West Virginia, and Milwaukee (89 percent) in Wisconsin.

The same cities that were most generous gave most of the donations to churches.

El Paso and Las Cruces in New Mexico form a combined statistical area, where most of the adults donated through churches (87 percent). In Lexington, about 84 percent gave specifically to churches, followed by Milwaukee (73 percent), Memphis (69 percent), and Charleston-Huntington (64 percent).

The results also show that people don't have to be rich to be generous.

In El Paso-Las Cruces, only 7 percent

of Americans were "upscale" or had an annual household income of \$75,000 or more, and 13 percent were "downscale" with annual income of \$20,000 or less.

In other cities that were highly generous as well, the proportion of "downscale" people was higher than the "upscale" ones, with the exception of Milwaukee where "upscale" people (12 percent) outnumbered the "downscale" population (10 percent) by a two percent margin.

For the survey, more than 76,000 people were interviewed via telephone and internet over a period of ten years which ended in April of 2016.

Americans Prefer to Talk About Politics More than About God, According to Study

Americans are more comfortable talking about politics than about God, according to a new survey by LifeWay Research.

Over 1,000 American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spiritual life and perspective on politics by LifeWay. The survey focused on the preference Americans place on talking about spirituality as opposed to politics.

About 60 percent of Americans are more comfortable with talking about politics than God, the study found. Evangelicals are more likely to be comfortable with discussing their spiritual beliefs (63 percent).

However, evangelicals also said they think they have more to share than to find out in a spiritual dialogue (32 percent vs. 17 percent).

As many as 64 percent of Americans discussed politics at least three times over the last month, but only 44 percent had given the same impetus to spirituality. 65 percent of Americans not having evangelical beliefs said they talk more about politics.

Along gender lines, more women (51 percent) said they would be comfortable with talking about their faith than those who said they are not (31 percent). Men were more likely to speak about politics than religion, as some 69 percent of said they prefer to talk about politics.

The study also found that levels of preference for the context in which spiritual discussions take place also differed. About 38 percent of Americans like to share their faith or are very

comfortable with expressing spiritual thoughts on social media, but 36 percent are not. And some 33 percent prefer sharing faith in a small group, and 40 percent on a one-to-one basis. Only 17 percent of Americans were "most comfortable" with sharing their faith on social media.

"People tend to discuss the things that matter most to them," he said. "For evangelicals, that is their faith,"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Since Americans in general were open to spiritual views of their friends, McConnell encouraged Christians to talk more about faith on social media.

"If your friends are tired of arguing about politics on Facebook, try asking them about God," he said.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c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